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답 응답 해답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이사야 43:18-21, 고린도후서 5:17

정윤돈 목사님

* **사43:18-2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아지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와 예배를 통해 절대불가능한 부분까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동안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두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주일이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잠언 6장 20절에는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 훌륭한 부분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 보통 부모님의 훌륭한 부분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만, 청소년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겼다. 성경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다. 훈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늘 빗지시는 어머니에게도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 되지 않고 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능력 없고 힘이 없을 뿐이지 착한 게 아니다. 흑암을 쫓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님이 훌륭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일단 불순종하면 기회가 없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정에서 훈련하고 교회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 승리한다. 결국 잠언 10장 1절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했던 것처럼 부모님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본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다. 램네프는 숙제를 잘 해라. 학교를 잘 다녀라. 주어진 본업에 1등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 성실한 만큼 되더라. 몸에 성실이 배이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기도 열심히 해도 성적 안 나오면 성령충만 다 떨어진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 반드시 조금씩 성령충만도 되어진다. 이 모든 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거기서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교회에서 남 탓하면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더 받을 수 없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직접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축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다. 감사에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초특급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게 다 거름이 되고 후대들은 계속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바르게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면 된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도 있고 어려움만 주는 부모님도 있지만 관계없다. 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237세대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 그릇이 콜라 뚜껑 같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그릇이 콜라 뚜껑 같아진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존경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가장 낮고 정성으로는 무당들이 훨씬 정성을 들이고 거룩하기로는 다른 종교들이 더 거룩하다. 그러나 사탄, 지옥 신분에서 천국 갈 자격은 따라할 수 없다. 재앙과 저주, 사탄과 지옥, 천국 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전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사령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도전해라. 포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닦아가야겠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램네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과 램네프들은 에스더와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처럼 응답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바꾼 여러분의 생명이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닌 생명을 보신다.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실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문제를 향하여 도전해야 하고 어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3응답 즉 응답, 해답, 도전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전 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24시 집중기도 안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 응답, 해답을 얻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인격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고민을 한다. 류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꼭 붙잡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응답을 주신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다. 문제가 클수록 큰 축복이다. 여러분의 잘잘못과 윤리, 도덕과 관계없다. 갱신하고 깨닫고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문제 오면 기도한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 속에서 문제의 답, 응답, 해답이 나올 때까지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해결 안 되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감사가 나온다.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때 CVDIP가 보인다. 문제 앞에서 절대주권을 믿는 자세가 성공자의 자세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이다. 이렇게 편지를 네 번씩이나 보낸 것은 문제가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성경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교회와 목사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케 하는 중간 전도제자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 천 단계, 만 단계 신앙생활이 있는데 성장해야하기 위해 중간사역자와 전도제자들이 필요하다. 성취된 응답을 그들에게 전해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개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첫 번째 편지에 순종하지 않아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 또는 ‘흑독한 편지’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문제에 답을 주고 사랑에 대해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꾸짖었다. 이것도 꾸짖람 들어도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것이다. 저

도 부교역자들에게 매우 꾸지람한다. 인턴십이다. 목회자와 부모님이 심하게 말하더라도 깨닫고 변화하고 교훈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반응했다는 좋은 소식을 디도가 전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교회를 다시 방문하였다. 그 방문 기간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위대한 신학적인 명작이고 복음의 명작이라고 평가되는 ‘로마서’이다.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록되고 전달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사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목회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구차하게 이런 말까지 할까 싶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정을 오해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자세히 말해줘야 할 때도 있다.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시기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교회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악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고린도교회와 사도 바울팀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성수만 하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일본에서 왜 예수 믿기 힘들까? 예전에 벌써 북한처럼 5호 담당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다.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2) 고린도교회 내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거리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한다. 치유받기 전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야한다고 말한다. 중간사역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복음의 사역으로 치유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한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살리려하지 않고 정죄만 하였다. 정죄하는 건 쉽다. 그러나 정죄는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어떤 것도 감사하고 편찮을 수 있음을 전달해야한다.

(4) 신천지처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혼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여호와증인, 구원파, JMS, 통일교, 제칠일안식교, 물론 교 등 성경말씀을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천주교다. 천주교는 신부님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말씀을 모른다.

(5) 개척한 목사인 사도 바울과도 갈등이 생겼다. 사탄이 역사하면 목사를 죽이려고 한다. 사탄이 아주 잘 도와줘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사탄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신본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의 포로, 노예되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많지도 관계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응답받고 주역이 되시면 된다.

(6) 고린도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도 못 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헐뜯었다. 바울이 눈도 안 좋고 글에는 능하지만 말을 잘 못했다. 다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였다. 바울이 헌금을 강요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꼭 제대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은 복음종직자의 망대로 서야겠다.

(7) 성경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거짓된 이단교리를 전하는 구원파, 여호와증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참 복음을 믿을 때 가짜는 구분된다. 믿을 없는 가짜들이 성경 찾아오고 뭘 해야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한다. 예수 믿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2.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복음적인 요절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적인 답, 응답, 해답을 찾아보겠다. 모든 수준, 기준, 표준이 성경이어야 한다.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다. 하나님은 흑암을 깨고 정확한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돌아만 다녀도 된다. 램넛트는 돌아만 다니지 말고 영어공부를 하면서 준비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고 해답을 주신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답과 응답을 받

았고 어떠한 해답을 주었을까?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시키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 노예라는 도장을 찍었다. 신분이 노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지시켰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2)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주신 사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욕구,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고 하면서 사실 안 끝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 겸손 하라고 문제를 주신다. 참된 전도자가 되라고 문제를 주신다. 국가대표 선수가 될수록 꾸지람을 듣는다.

(3)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4)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저는 운동현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막 전도하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다. 여러분이 해야 할 본업에 충성을 다해라. 본업을 위해 건강관리하고 전도하고 공부해라.

(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참된 언약 가진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6) 우리들은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응답, 해답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많은 문제 앞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답과 응답과 해답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답과 응답과 해답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지말에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절대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